

百弗庵 崔興遠 先生의 生涯와 思想

金 時 晃*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1) 出處觀 |
| 2. 生涯와 思想 | 2) 出天의 大孝 |
| 1) 家系와 生涯 | 3) 崇祖 |
| 2) 修學過程 | 4) 睦婣 任恤 |
| 3) 教育 活動 | 4. 學問 |
| 3. 思想 | 5. 맺는말 |

1. 머리말

百弗庵 崔先生은 朝鮮 後期 英祖 正祖 시대의 學者로서 평생동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孔孟程朱를 본받아 人格 陶冶에 일생을 바치면서, 經學과 性理學에 沒頭하면서 實踐躬行으로 聖人이 되고자 한 典型的인 선비였다.

우리 나라에는 아주 먼 옛날부터 學者와 선비들이 무수히 많았었지만, 古代의 文獻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高麗나 朝鮮時代에는 文集을 남긴 이가 더욱 많다. 百弗庵 先生은 시대적으로 文運이 가장 旺盛했던 英祖 正祖代를 살았었고, 地域的으로는 朝鮮 性理學의 본고장인 嶺南에서 學問活動을 유감 없이 하였다.

당시 正祖가 선생께 上京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督促하면서, “前主簿 崔興遠은 行實이 칭찬할 만할 뿐아니라, 마을에 先公, 卹貧이라는 창고를 두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鄉約으로써 과업을

* 慶北大學校 教授

勸獎하였으니, 이 사람을 반드시 보고자 한다. 該曹에서 직급을 올리게 하고 거듭 타일러 올라오게 하라. 아아, 선비는 뜻을崇尚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내 어찌 나이 많은 이를 번거롭게 하겠느냐. 그러나 四方의 선비들이 내가崇尚하는 것은 學行이요, 급히 여기는 것이 人材임을 안다면, 이를 勸하는 나의 마음을 혹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선생의 人品과 學德과 平生의 業績을 짐작하고도 남는다.¹⁾

그러나 이와 같이 高邁한 人格을 갖춘 선생에 대하여 그 生涯와 思想 및 學問에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 學術 研究 또한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門中에서 자손들의 노력으로 선생의 文集을 徐首生 博士를 비롯한 黃渭周, 朴英鎬 등이 國譯하여 출판 段階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선생의 빛나는 삶과 사상 및 學問 등에 대하여 [文集]과 [言行錄]을 중심으로 하여 文學 歷史 哲學 등 몇 분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현대 생활의 본보기로 삼고, 나아가 미래를 設計하는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2. 生涯와 思想

1) 家系와 生涯

선생의 諱는 興遠, 初諱는 興源, 字는 太初이고 初字는 汝浩이며 月城(慶州) 人으로 始祖는 朝鮮初 兵曹判書 崔鄴이다. 선생의 年譜를 중심으로 하여 家系와 生涯를 대강 간추려 본다. 家系는 아래와 같다.

一世 崔鄴²⁾ (兵曹判書) - 二世 在田(梁山郡守 贈贈戶曹參議) - 三世 孟

1) [先生 年譜] 正祖 7년 癸卯(1783). 79歲條

2) 崔鄴(崔鄴) : 恭讓王 2년(庚午, 1390)에 漢城府尹 兼判慈惠府事를 지냈고, 朝鮮 太祖가 卽位하자 翊戴開國原從功臣으로 錄選되고, 資憲大夫行兵曹判書에 除授되었으며, 諡號는 匡靖으로 추증되었다. 匡靖公 事蹟에 의하면, '광정공의 父는 集賢殿學士

淵³⁾(生員 孟山縣監) - 四世 澣(漢城參軍) - 五世 自河(繕工監 監役) - 六世 海(萬戶) - 七世 宗沃(字 啓心 司憲府監察) - 八世 誠(字 士訓 號 台洞 萬頃縣令 贈兵曹參判) - 九世 東집(山아래集 字 鎮仲 號 臺巖 大君師傅⁴⁾) - 十世 衛南(字 子城 生員) - 十一世 慶涵(字 君養 宣教郎) - 十二世 壽學(字 德叟 司憲府監察) - 十三世 鼎錫 字 禹瑞 通德郎) - 十四世 興遠 (곧 先生, 初諱는 興源 字는 汝浩) - 十五世 周鎮 - 十六世 湜 - 十七世 孝述(都正⁵⁾) - 十八世 命德 命愚

선생은 肅宗 31년 乙酉(1705) 2월 15일 大邱府 院北里 집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5代祖 臺巖公이 처음 大邱의 解顔縣 동쪽 漆溪⁶⁾에 살았으며, 院北은 곧 선생의 外家이다.

肅宗 40년 甲午 10歲 正月에 祖考 監察公 諱 壽學이 湖南의 雲峰에서 客死하였는데, 通德郎 諱 鼎錫이 천리 먼 곳으로 관을 모시러 가고, 선생이 홀로 어머니와 집에 있으면서 모든 조치를 조리 있게 하여 返葬⁷⁾하는 일에 맞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특이하게 여겼다.

景宗 元年 辛丑(1721) 17歲 9월 靖平公 孫洪亮의 후손 節度使 命大의 女를 夫人으로 맞이하였는데, 선생은 夫人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부부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함께 부모를 섬기기 때문이니 어찌 서로 힘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景宗 2년 壬寅(1722) 18歲 가을에 鄉解에 나아가 生員 初試에 합격하였다. 선생은 일찍부터 求道의 뜻이 있었으며, 비록 아버지의 命으로 과거 시험을 보

諱 澣, 조부는 閤門祇候 諱 岫雲, 증조는 門下侍中 諱 有慶, 고조는 門下贊成事 諱 隰이며, 文昌侯 孤雲先生 12대손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공의 두 아들은 在田 梁山 郡守 贈戶曹參議와 在源 兵曹正郎으로 되어 있다.

3) 孟淵 : 大邱에 처음으로 거주하였음.

4) 大君師傅 : 東班 內職의 從九品

5) 都正 : 宗親府 敦寧府 訓練院에 소속된 正三品 벼슬이다.

6) 漆溪 : 속칭 옷골, 대구광역시 東區 屯山洞.

7) 返葬 : 客地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으로 옮겨다가 葬事 지내는 것.

왔지만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英祖 3년 丁未(1727) 23歲 正月에 끝의 삼촌 將仕公의 喪을 만났다. 당시에 사촌 누이동생들이 모두 어렸으므로, 朝夕으로 奠드리고 哭하는 것을 선생이 반드시 몸소 奉行하였으며 사는 집이 조금 떨어졌지만 비바람이 불거나 춥고 더운 날씨에도 폐하지 않고 3년을 하루같이 하셨었다.

叔母 李氏를 섬기기를 어머니와 같이 하였으며, 돌아가시고 나서는 모든 초상 도구를 정성을 다해 갖추었고, 빈소를 옮기고 사촌 아우와 누이동생들을 이끌어 가르치고 길러서, 成就시킬 때도 힘쓰지 않음이 없었다.

英祖 5년 己酉(1729) 25歲 가을에 苞山試로부터 돌아와서 어른에게 아뢰고는 결국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英祖 9년 癸丑(1733) 29歲 2월에 慶山 嚴慶遐의 荒政韻에 차운하는 詩를 지었다. 당시에 몇 해 동안 크게 饑饉이 들었는데 嚴公이 홀로 荒政⁸⁾을 잘 다스리고 五難字 시를 지으니, 선생이 그 시에 次韻하여 세상을 한탄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뜻을 부치었다.

6월에 丈人인 節度使 孫公이 別世하였다. 당시에 孫公은 濟州 牧使였는데 『心經』⁹⁾ 一本을 부치고 편지로 연구하는 데에 힘쓰게 하니, 선생은 손수 『易卦圖說』을 베껴서 그 정중한 뜻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訃音이 오니, 선생이 매우 애통해하며 傷心하였다.

英祖 11년 乙卯(1735) 31歲 7월에 通德公의 喪을 당하였다. 通德公은 敦厚 周愼하여 자식들을 義方¹⁰⁾으로써 가르쳤다. 11월에 大邱의 북쪽 廣店村 西坐

8) 荒政: 정사를 버려둠. 凶년에 백성을 救恤하는 政策 [周禮 地官 大司徒] '以荒政十有二 聚萬民'

9) 心經: 宋의 文忠公 西山 眞德秀 先生 지은 책. 4권 1책. 程敏政의 序에 眞西山 文忠公이 일찍이 聖賢의 格言을 가려 모아서 한 편의 심경을 만들어 찬송하였다. 그 첫머리에 「書大禹謨 人心道心章」을 마련하고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이란 16言으로써 朱子가 尊德性的 銘을 삼았다. 退溪가 지은 『心經釋疑』 4권 1책은 退溪가 西山의 『心經』을 강의할 때, 字句 해석한 것을 문인 李德弘과 李咸亨 등이 기록한 것인데, 뒤에 肅宗의 御命으로 宋時烈 朴世采 등이 교정하여 간명하게 定本을 만들고 어려운 곳은 한글 해석을 붙여 刊行한 책이다.

10) 義方: 義를 지켜 그 外貌를 단정히 함. 家庭內에서 德義에 맞는 教訓을 하는 것.

언덕에 통덕공의 장사를 지냈다.

英祖 13년 丁巳(1737) 33歲 3월에 [性理大全]¹¹⁾을 보았다.

9월에 服闋¹²⁾하였다. 해마다 諱日에는 반드시 黻冠¹³⁾을 쓰고 禫服¹⁴⁾을 입고 죽을 먹고 거처하며 思慕하는 것이 初喪 때와 같았다. 매일 새벽에는 祠堂에 參拜 하였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술과 과일 등을 차려 드렸다.

날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아우들과 온화하게 뜻을 받들면서 그 즐거움을 다하였으며, 물러나서는 자리를 함께하여 거처하며 때때로 경전을 연구하기도 하였고, 간혹 禮에 의심나는 것을 변론하여 進修하는 공부가 매일 더욱 敦篤하였다.

12월에 [天命圖]를 보았다. 한 本을 베껴서 草廬公에게 주어 스스로 살펴보게 하셨다.

英祖 15년 己未(1739) 3월에 <梅花詩>를 읊었다. 시는 아래와 같다.

歲歲寒葩發古枝 해마다 옛 가지에 찬 꽃송이 피어 나니
生生物理最堪奇 생생한 만물 이치 정말로 기이하네
斯人何獨無斯理 어이 다만 이 사람은 이 이치가 없는고
孤露傷心涕自垂 孤露¹⁵⁾로 상심하니 눈물이 흐르누나

선생은 스스로 草土¹⁶⁾를 겪으면서 餘哀를 잊지 못할 때면 곧 사물을 보고 追

11) 性理大全 : 明의 永樂 13년(1415) 胡廣 등이 勅命으로 엮은 책 70권. 이 책은 宋의 도학자 120家の 學說을 採集하였다. 그 중에 原書를 채록하여 部秩을 이룬 것이 9種, 群說을 모아 分門하여 엮은 것이 13類이다. 그 9종을 들면, 周子の 太極圖說 1권, 通書 2권, 張子の 西銘 1권, 正蒙 2권, 邵子の 皇極經世書 7권, 朱子の 易學啓蒙 4권, 家禮 4권, 蔡元定の 律呂新書 2권, 蔡沈의 洪範皇極內篇 2권이다. 四書大全, 五經大全과 共히 永樂의 三大全이라 한다.

12) 服闋 : 3년상을 마침. 闋制, 闋服, 除服과 같은 말.

13) 黻冠 : 검푸른 색의 갓.

14) 禫服 : 喪中에 있는 이가 禫祭 후 吉祭까지 입는 흰 옷.

15) 孤露 : 孤는 부모가 없는 것이고, 露는 나를 감싸 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 고독하고 돌보아 주는 이가 없음을 뜻한다. 『顏氏家訓』'雖已孤露 其日皆爲供 頓酣暢聲樂'

16) 草土 : 喪中, 喪主가 거적을 깔고 흙베개를 베고 자는 데서 온 말. [資治通鑑 唐 天復 2] '時韋貽範在草土' 草土臣은 居喪中인 臣下의 自稱임.

感¹⁷⁾의 회포를 드러내었다.

英祖 16년 庚申(1740) 36歲 4월에 夫人 孫氏가 作故하였다. 부인은 정숙하고 유순한 덕을 갖추어 한결같이 선생의 뜻을 받들었는데, 임종에 선생이 “함께 아버이를 奉養하였으며, 또 함께 祭祀를 받들었더니, 불행히도 갑자기 內助를 잃게 되었으니, 어찌 나의 命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후 40여 년을 홀로 지내면서 몸을 조양함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태연히 지내셨다.

枝谷에서 屏谷 權榘¹⁸⁾선생을 찾아보았고, 12월에 光陽에서 霽山 金聖鐸 先生¹⁹⁾을 찾았다. 草廬公과 함께 晉陽 轟石樓²⁰⁾에 올라가서 鶴峰 金先生²¹⁾ 〈三壯士〉詩²²⁾에 次韻하였다.

17) 追感 : 지난 일을 생각하여 마음에 그리워함을 뜻한다. 『北史』 ‘追感舊意 經恤其家’

18) 權榘 : 肅宗 13년(1672)~英祖 25년(1749). 號는 屏谷. 葛庵 李玄逸 선생의 門人.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四書·六經을 탐독, 天文·籌數·卜筮·兵家에 달통했고, 社倉을 열어 貧民을 구제하고, 鄉約의 실시로 良風을 일으켰다. 英祖 4년(1728) 李麟佐의 난 때, 按撫使 朴師洙에 의해 賊黨 가담 우려가 있다고 여겨져 서울에 押送되었으나, 그의 人品에 감동된 英祖의 特旨로 석방되었다.

19) 金聖鐸 : 肅宗 10년(1684)~英祖 23년(1747). 호는 霽山. 본은 의성. 영조 4년 이인좌의 난 때, 倡義하여 討逆文을 지어 각지 유림에 발송하였고, 監賑御史 李宗白의 천거로 司果·司畜署 別提를 지냈다. 治平의 요점을 건의하였고, 이듬 해 文科에 올라 正言 修撰을 역임, 영조 13년(1737) 葛菴 先生을 伸冤하는 疏를 올렸다가 濟州 旌義에 流配, 다시 光陽에 移配되어 配所에서 卒하였으며, 文章家로 性理學에 造詣가 깊었다.

20) 轟石樓 : 경남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누각. 축석성의 남단 강쪽 벼랑 위에 자리 잡은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八作집인데, 성의 主將臺라 한다. 白淡庵이 말하기를 ‘江中石有轟促’이라 말 한 까닭에 누각을 ‘轟石’이라 하였다. 이 누각은 7백여 년전에 건립된 듯하며, 여말 병화를 입었으나 조선 太宗 때, 牧使가 재건했다고 한다. 임란 때 파괴된 것을 병사 南以興이 再建하였다. 지난 1950년 6·25동란 때에 불탔으나, 1959년에 다시 중건하였다.

21) 鶴峰 : 중종 33년(1538)~선조 26년(1593). 金誠一 先生의 號. 본은 의성. 퇴계 문인.

22) 三壯士 詩 : 여기 三壯士란 壬亂 때 救國하다가 간 鶴峰 金誠一·大笑軒 趙宗道·松巖 李魯 등 3인을 흔히 축석루 3장사라 한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健齋 金千鎰·三溪 崔慶會·隼峰 高從厚를 3장사라 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鶴峰이 壬亂이 발발하던 5월에 大笑軒·松巖과 함께 축석루에 올라서 넘실넘실 흐르는 남강을 바라보면서 誓死報國하기를 기약하고 학봉이 술잔을 잡고는 시를 읊기를 ‘轟石樓上三壯士 : 축석루 다락 위에 삼장사가, 一盃笑指長江水 : 한 잔 들고 웃으면서 남강 물에 맹세하네. 長江之水流滔滔 : 저 장강의 푸른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데, 波不竭兮魂不死 : 무궁한 유수처럼 그 혼백 죽으리까.’ 라 하였다. 지난 1959년 心山 金昌淑·

英祖 17년 辛酉(1741) 37歲 11월에 셋째 아우 陸窩公 興建과 함께 (禮儀補遺)를 교정하였다. 12월에 母夫人의 生辰에 壽宴을 열어 드렸다. 이 때부터 해마다 행하였는데 한결같이 司馬溫公 家의 獻壽儀를 따랐다.

英祖 19년 癸亥(1743) 39歲,9월에 禰祀²³⁾를 행하였다.

英祖 20년 甲子(1744) 40歲 3월에 <紫荊詩>²⁴⁾를 지었다. 여러 아우들과 떨어져 살 때 선생이 시를 지어 느낌을 나타내기를,

夜來風不吹 간밤에 바람이 불지 않았으니
紫荊應葆英 박태기²⁵⁾ 꽃뿌리가 웅당 아름다우리
何事庭前樹 무슨 일로 뜰 앞에 있는 나무는
枯榮不欲榮 시들어 꽃답고자 하지 않는가
自愧心力薄 스스로 부끄럽네 내 심력이 박해서
培養未以誠 북돋아 기르기에 정성 못다함이

라 하였다.

剛窩 任必大가 來訪하여 [家禮]와 [小學] 등을 강론했다. 10월에 夫仁洞 講堂이 이루어 졌다. 藍田鄉約을 읽어서 깨닫게 하고, 孝悌忠信의 道와 발을 갈고 집을 다스리는 業에 힘쓰게 하였다. 이를 마치고는 술 二三行을 돌리고 拜揖하며, 감히 시끄럽게 하거나 예에 어긋나는 자가 없게 하였다.

9월에 陶山의 尙德祠에 參拜하였다.

大山 李象靖 선생을 五美洞에서 처음 만났는데, 한 마디 말로 서로 契合한 듯 하여 이후로 편지를 왕래하면서 道義로 서로 격려하였다.

重齋 金梔·東樵 李愚益이 중심이 되어 3장사 추모계를 만들고 이듬해 8월에 三壯士記實碑를 축석루 곁에 세웠는데 김항이 비문을 짓고 崔載浩가 번역하였다.

23) 禰祀 : 아버지를 모신 사당에 제사 지냄. 『春秋公羊傳』 註釋 '生稱父 死稱考 入廟稱禰' (살아 계실 때는 父라 하고, 돌아가시면 考라 하고, 사당에 모셔지면 禰(네, 니)라고 한다)

24) 紫荊詩 : [百弗庵文集 卷1] 5장에 「自咎吟」이라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의 자형시의 내용과 같다. 이 시는 자신의 '허물 노래'라 할 수 있으며, 古體詩의 五言六句詩이다.

25) 紫荊 : 콩과에 속하는 落葉 闊葉 灌木. 박태기나무. 紫荊花는 兄弟가 아버지의 遺產을 나누지 않고 사이좋게 共有함을 기리는 말. 田眞 三兄弟의 故事.

英祖 25년 己巳(1749) 45歲 8월에 〈龔淵詩〉를 지었다. 스스로 註하기를, 한밤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龍淵 풍경의 뛰어난을 생각하면서 7언절구 1수를 지었다고 하였다.

身世徒然一草廬 이 몸이 헛되이 草堂에서 살아가니
意中惟有古琴書 마음 속엔 다만 옛 琴書가 있을 뿐
何時出此塵窠外 어느 때 이 티끌 세상²⁶⁾을 벗어나서
走入公山水石居 팔공산 대자연에 안겨서 살려는가

英祖 26년 庚午(1750) 46歲 2월에 陸窩公과 함께 [性理大全]을 강론하였다. 北溪精舍가 이루어 졌다. 선생은 일찍이 龔淵에 서 藏修하려는 뜻이 있었지만 힘이 부족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시내 위쪽 수백보 쯤에 먼저 3칸 5기둥을 세우니, 숲 골짜기가 넓고 그윽하며, 또한 푸른 절벽과 맑은 물의 풍경이 벌어졌기에 선생이 그 집을 靜修라 하고, 堂을 玩樂이라 하였다. 합하여 扁額을 北溪精舍라 하니, 그것은 시내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3월에 여러 생도들과 程子の '心無出入說'을 강론하였다. 육와공과 함께 [中庸]을 강론하였다. 人心道心說은 聖人이 정령하게 고계하여 서로 分付하는 것이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英祖 30년 甲戌(1754) 50歲 12월에 外三寸인 趙東益公의 喪事에 哭하였다. 趙公의 집은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선생이 계절마다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매년 생일에는 선물을 갖추어 축하하였으며, 喪을 당하여는 衣服과 冠을 갖추도록 힘써 도와 주었다.

英祖 31년 乙亥(1755) 51歲 3월에 龔淵亭이 이룩되었다. 농연정은 3칸인데, 동쪽 두 칸을 齋로 만들어 '洗心'이라 하고, 서쪽 한 칸을 軒으로 만들어 '濯淸'이라 하고, 합하여 扁額하기를 '龔淵書堂'이라 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舍宿하는 데 대비하였다.

英祖 33년 丁丑(1757) 53歲 2월 伽倻山을 유람하고 〈遊山錄〉을 지었다.

26) 窠 : 등지과, 居室과.

英祖 36년 庚辰(1760) 56歲. 9월에 義庫가 완성되었다. 報本堂에서 이 창고를 설립하여 흉년이 들 때에 가난한 친척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英祖 37년 辛巳(1761) 57歲. 5월에 蠶淵亭에서 [心經]을 강론하였다. 거기서 詩를 지은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成屋十年未一居 집 지은지 십년토록 거처하지 않았는데
 今來靜坐好看書 이제사 정좌하니 책읽기가 좋구나
 遊人莫笑開窓懶 친구들아 開窓을 게을리함 비웃지마라
 卷裏飛鳶又躍魚 책 속에 鳶飛魚躍 조화 묘리 있어라

英祖 41년 乙酉(1765) 61歲 정월에 百弗庵이라 扁額을 걸었는데, 朱夫子의 ‘百弗知 百弗能’이란 말에서 취하여 自號로 삼은 것이다.

8월에 母夫人의 喪을 당하였다.

英祖 42년 丙戌(1766) 62歲 정월에 母夫人의 葬事를 대구의 북쪽, 道藏洞 寅坐原에 지냈다.

英祖 43년 丁亥(1767) 63歲 10월에 喪을 마치셨다. 선생은 일찍이 羸疾²⁷⁾이 있었고 또 환갑이 넘었으나, 예를 더욱 견실히 행하시어 능히 상을 마쳤으니, 사람들이 神明이 도왔다고 여겼다.

英祖 48년 壬辰(1772) 68歲. 3월에 李小山이 찾아와 [家禮]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正祖 2년 戊戌(1778). 74歲. 정월에 景慕宮 守奉官에 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7월에 莊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正祖 3년 己亥(1779). 75歲. 3월에 金濯以의 죽음에 哭하다. 葬禮時에 喪主가 관을 안고 까물어쳐 죽는 변고가 있었는데²⁸⁾, 선생이 듣고 탄식하며 말하

27) 羸疾 : 병들어 파리한 것. 羸病.

28) 樂有齋 金始器(1747-1779). 蘭谷 金江漢(字 濯以) 선생의 子. 아버지가 病이 들자 五六個月 동안 옷을 벗지 않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데 乙亥年(1779) 3월 21일에 大故를 당하여 5월 23일에 葬事하는데, 마침 장마가 여러 달 계속하여 水路가 平坦하지 못하였으나, 상여꾼들이 水路를 따라 가야한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라 갔다. 洛淵에 이르자 公에게 喪輿를 타라하여 반쯤 건너

기를, “이 사람이 죽음에 그 安寧함을 얻지 못했고, 어머니 없는 아이가 또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으니, 더욱 슬프도다” 라고 하였다.

12월에 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正祖 5년 辛丑(1781). 77歲. 元旦에 家事를 孫子 滉에게 전할 것을 家廟에 告하였다. 12월에 이대산의 부음이 오니, 자리를 정하고 곡하였다. 그를 위하여 3개월 동안 소복과 띠를 입었고, 제문을 지으셨다. 조카 華鎭에게 명하여 예전에 주고받은 글을 찾아내어 자리 옆에서 읽게 하고, 壬申년 별지 여덟 조목 論學의 말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말하기를, “이 늙은이의 평생 동안 공부한 것은 마땅히 여기에서 얻었을 것이다. 이미 스스로 힘쓰고 또 미루어서 朋友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군자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겠는가. 우리 儒者의 진정한 맥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正祖 6년 壬寅(1782). 78歲. 8월에 掌樂院主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領相 徐命善이 啓하기를, “영남은 예로부터 鄒魯라고 하였습니다. 문학과 선행이 彬彬함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홍원은 일도(慶尙道)에서 가장 명망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道로써 천거되었지만 겨우 미미한 자리에 있을 뿐이니, 어찌 士風을 흥기시켜 인재를 모을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해당 관서에 명하여 6품으로 등용하여 조정의 인재를 甄拔²⁹⁾하고 권장하는 뜻을 보이소서.” 라고 하니, 임금의 허락하여 이 명이 내려진 것이다.

正祖 7년 癸卯(1783). 79歲. 정월에 임금의 명이 있었는데, 該曹를 시켜 職品을 올리게 하고, 그가 올라오도록 申飭³⁰⁾하였다.

6월에 임금의 명이 있어, 本道에서 [四書]를 인쇄하여 下賜하게 하였다. 임금

는데, 앞쪽 喪輿꾼들이 길을 잃어 중간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 가니, 뒷쪽 喪輿꾼들도 거기에 따라 끌려 들어갔다. 폭포가 앞에 있고 水勢는 점점 급해지므로 상여꾼들이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 상여를 버리고 일시에 도망쳐 나왔다. 公은 일어나 喪服과 經帶¹⁾를 단정히 하여 널을 안고 마침내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沉水軍²⁾을 동원하여 삼일 동안 搜索한 결과 널이 빠졌던 자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屍身을 찾았는데, 얼굴 모습이 변치 않았고 孝巾³⁾과 經帶 菅屨⁴⁾ 등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29) 甄拔 : 인재를 뽑아서 쓰다. 選拔.

30) 申飭 :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다.

의 명이 관찰사에게 내렸는데, “최홍원은 전에 벼슬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出仕하지 않았으니, 본도에서는 [四書大全]과 [諺解]를 갖추어 인쇄하여 주도록 하라.” 고 하였다.

12월에 특별히 工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正祖 8년 甲辰(1784). 80歲. 정월에 巡使 李秉模³¹⁾가 찾아왔다. 李公이 한마디 말을 청하자, 선생이 [澤堂訓帖]가운데 ‘淸心寡欲 事君盡誠’³²⁾이라는 8글자를 들어서 힘쓰게 하였다.

7월에 翊衛司 翊贊에 제수되었다. 이 때에 東宮冊禮³³⁾를 행하는데, 桂坊³⁴⁾을 설치하고, 임금이 내외에 명하여 巖穴經術之士³⁵⁾를 구하여, 靑筵³⁶⁾의 教導에 대비하고자 하니, 여러 신하들이 입을 모아 선생을 추천하였기에 드디어 맨 먼저 이 명을 받게 되었다.

선생은 현된 이름으로써 상감마마를 속여 누차 잘못된 은혜를 입었다고 여기고, 늙고 병들어 蟄居하며 한 번도 공경히 나아가지 못한 것을 항상 송구스러워 하며 편하지 않게 여기었다.

正祖 10년 丙午(1786). 82歲. 大耋³⁷⁾로써 通政大夫³⁸⁾의 등급에 오르셨다. 임금이 銓曹³⁹⁾에 명하기를, “최홍원은 지금에야 등급이 올랐으니, 이는 法典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經學으로 누차 천거 명단에 올랐으니, 금일 마땅히 직위에 맞게 임용하라.” 고 하였다.

31) 李秉模 : 호는 靜修齋, 본관은 덕수, 李澤堂의 5代손. 정조 때 領相. 정조 21년(1797)에 왕명으로 『三綱行實圖』·『二倫行實』을 편찬, 평안도 감사 때 묘향산의 酬忠寺의 休靜(西山大師)의 비문을 지었으며, 시호는 文肅이다.

32) 淸心寡欲 事君盡誠 :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임금을 섬기며, 충성을 다 바친다는 뜻.

33) 東宮冊禮 : 세자를 책봉하는 의식.

34) 桂坊 :世子翊衛司

35) 巖穴經術之士 : 암혈이란 俗世를 떠나 산 중에 은거하는 선비. 隱士. 곧 巖穴之士의 준말. 그러므로 隱逸士와 經術에 능한 선비라는 뜻이다.

36) 靑筵 : 왕세자가 강론하는 곳. 書筵·離筵.

37) 大耋 : 80세 노인.

38) 通政大夫 : 조선조 때, 정3품인 堂上官의 文官 품계.

39) 銓曹 : 조선조 때, 吏曹와 兵曹를 통칭하는 말.

7월에 族弟 興之의 죽음에 뜻하였는데, 선생은 통곡하고 슬퍼하며, 또 가난해 喪을 치를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명주옷 한 벌과 관의 재목을 보내서 賻儀하였다.

8월 丁未에 先妣의 제사를 지내고, 연달아 병석에 누웠다. 당시에 선생은 이미 약간의 병이 있었고, 기력이 綿綴⁴⁰⁾하여 弟姪 등이 제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청하니, 선생이 “내가 늙었으니 제사를 지내는 날이 얼마나 되겠느냐.”라 하고, 沐浴齋戒와 行素를 평소와 다름 없이 하고, 행사 후에 기운이 더욱 沈篤하니 시중 드는 사람이 약들기를 청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내 나이가 얼마인가. 꼭 약을 먹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선생이 主敬⁴¹⁾한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독하여 비록 병상에 누워 있는 중이라도 늘 이른 새벽에 청신한 마음으로 微微하게 [敬齋箴]을 외웠으며, 이때에도 또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辛酉日에 병이 더욱 심해졌는데도 敬牌 위에 옷이 걸린 것을 보시고 손을 들어 치우게 하고 한참을 凝視하니, 비록 기력은 이미 다했으나, 정신은 어지럽지 않아서 수족을 가지런히 하고 옷과 이불을 정리하였으며, 가끔 부축 받아 일어나 앉기도 했는데 어깨와 등을 곳곳이 하여 조금도 게으른 모습이 없었다.

이틀 전 己未일에, 선생이 용변을 보려 함으로, 侍者가 尿器를 방안에 들어 놓으려하자 선생이 벽에 걸린 敬牌를 응시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으니, 시자가 이에 堂 아래에 변기를 두었는데 그런 뒤에 나가서 용변을 보았다.

22일 壬戌 아침 나절이 지나, 侍者에게 누운 자리를 정리하게 하고, 부축 받아 똑바로 누워 손으로 두건을 정리하고, 未時에 마음 편안히 永眠하였다. 士林들이 와서 뜻하는 자들이 슬퍼하면서 失性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10월 22일 壬戌日 午時에 漆溪 동쪽 儉德山 艮坐⁴²⁾ 언덕에 葬事하였다. 初終 이후로 원근의 儒生들이 서로 번갈아 와서 곡하였는데, 이 때 모인 이가 3백

40) 綿綴 : 병이 위중하여 숨이 끊어질 듯한 모양을 말한다.

41) 主敬 : 공경의 뜻을 오로지 한다는 말이다. 송나라 때, 程伊川과 朱子が 주창한 수양법이다.

42) 艮坐 : 동북간 방위. 묘터나 집터의 艮方을 등지고, 坤方을 향한 좌향. 艮坐坤向.

여 명이 되었다.

正祖 13년 己酉(1789) 6월에 孝行으로 旌門⁴³⁾을 명하였다.

正祖 14년 庚戌(1790) 正月에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經筵 參贊官에 贈職되었다.

2) 修學過程

선생은 8歲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80세가 넘어 別世 직전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年譜에 나타나 있는 學問 修鍊 過程을 整理해 보면 아래와 같다.

11歲 때 봄에 石田에서 姑母夫人 李柱嵩公에게 글을 배웠다. 李公은 星曆,⁴⁴⁾ 度數⁴⁵⁾에 밝아서 매일 밤 天象을 즐겨 보았으므로, 선생이 天地運會의 大體에 널리 통함이 여기에서 발단 되었다.

16歲에 10월에 팔공산 남쪽 寶齋寺에서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八公山下一庵雄	팔공산 아래에 한 암자가 웅장한데
畫閣巋然上碧穹	단청 누각 우뚝히 ⁴⁶⁾ 창공에 솟았구나
落葉盡堆峯似瘠	낙엽이 떨어지니 산봉우리 여위었고
懸流爭瀉壑如聾	폭포수 쏟아지니 골짜기는 귀먹은듯
從教物外新盟定	물외의 새로운 맹세를 정하고서
卻要塵間舊染空	티끌세상 묻은 때가 씻어지기 바라노라
最是靈區無限意	가장 이 신령스런 곳의 한없는 뜻은
數聲鳴鶴九天通	몇 마디 학 울음이 구천에 통하도다

43) 旌門 : 효자·열녀 등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그 마을 어귀에 붉은 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

44) 星曆 : 天文曆法을 말한다.

45) 度數 : 각도·온도·광도 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 '日月星辰의 度數에 天道가 갖추어졌다'고 『周禮』에 기록되어 있다.

46) 巋然 : 높고 험한모양규. 우뚝선 모양.

16세 때부터 읽고〈讀〉 보았는〈看〉 經書와 性理書를 중심으로 하여 年齡 順序로 定理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6歲 [孟子]
- 22歲 [尙書] [太極圖] [通書] [西銘]
- 30歲 [心經]
- 35歲 [二程全書] [近思錄] [太極圖說]
- 38歲 [論語], [學菴通辨] [性理大全] [儀禮註疏] [朱子書節要]
- 41歲 [延平答問] [勉齋集]
- 42歲 [大學]
- 44歲 [讀書錄] [磻溪隨錄] [孟子]
- 50歲 [心經]
- 51歲 [朱子書]
- 56歲 [朱子年譜]
- 58歲 [朱子大全]
- 62歲 [大學]
- 63세 [大學或問] [大學]
- 66歲 [心經]
- 72歲 [孟子] [心經]
- 73歲 [周易]
- 75歲 [通書]
- 80歲 [朱子書節要] [易學啓蒙]

위에 明示한 책 외에도 四書나 三經은 물론이고, 歷史書나 先賢들의 文集을 수 없이 읽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注目할만한 것은 어렸을 때 배우고 읽었던 책을 평생 동안 여가 있는 대로 隨時로 反覆하여 여러 번 다시 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經書와 [心經] [近思錄] [太極圖說] [二程全

書) [朱子書] 등 性理書를 集中的으로 보았거나 읽었다는 것은 經學과 性理學에 置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22歲 正月에 桐華寺에서 尙書를 읽었고, 3월에 太極圖, 通書⁴⁷⁾, 西銘 등의 책을 읽었는데, 新溪 李皙이 이 책을 베껴서 [學海觀瀾]이라는 이름을 부치고, 선생에게 보기를 권하니 선생은 손수 베껴서 문을 닫고 연구하면서, 寢食을 잊을 정도였다. 고 한 것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의심이 나고 어려운 곳에 부딪치면 남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깊이 연구하고 玩味를 오래도록 하게 되면 文理가 저절로 통해지는 것을 알았다. 이로부터는 스스로 생각해서 이루고자 하였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오히려 두려워 하였다.” 고 한 것을 보면 선생의 學習 方法과 스승에게 직접 나아가 배우지 않고 끝까지 獨學으로 애써 학문을 成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教育 活動

선생은 아들 및 조카들의 교육은 당시 이름난 학자들에게 부탁하였고, 또 이웃과 周邊 젊은이들을 위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講學하는 규정을 만들어 책을 읽게 하였으며, 여러가지 儀節에 대해서도 參觀이나 선생의 직접 講論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33歲 正月에 아들 周鎭에게 명하여 恥齋 曹仲吉 先生의 門下에서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3월에 성리대전을 보고 周鎭에게 편지를 하여 말하기를, “[性理大全]은 安東 지방에서 산 책인데, 이것은 月川⁴⁸⁾ 선생이 일찍이 읽었던 것이고, 退溪 선생이 그 제목을 쓴 것이니, 매우 귀중히 여길 만하다.”라고 하였다.

38歲 정월 아들 周鎭에게 명하여 碁三百을 풀게 하고, 璿璣玉衡⁴⁹⁾이란 渾天

47) 通書 : 宋의 周敦頤가 지은 책. 1권. 처음엔 易通이라 하였으나 뒤에 通書라 고쳤다. 通이란 것은 도리에 통달한다는 뜻이며, 이 책은 무릇 40편이나 되고 太極圖說과 서로 表裏가 된다.

48) 月川 : 趙穆 (1524~1606)의 號. 퇴계 문인. 工曹參判. 陶山書院에 祭享.

49) 璿璣玉衡 : 옛날에 天體를 관측하는 데 쓰던 옥으로 장식한 기계. 渾天儀. 그런데

儀를 만들게 하였다. 선생이 지구의 도수 형상을 살펴보고 말하기를, “처음 배울 때는 심신을 구하는 공부로써 절실하게 해야 하지만, 君子가 스스로 自彊不息⁵⁰⁾하는 뜻을 마땅히 여기에서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英祖 19년 癸亥(1743) 39歲, 8월에 초하루 보름에 강론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아들 조카 등 배우는 이들에게 經典과 [小學] 등의 책들을 背誦하도록 하였는데, 이로부터 해마다 행하였다.

英祖 27년 辛未(1751) 47歲 9월에 조카 思鎭·尙鎭에게 명하여 李大山 문하에 從學하게 하고, 陞陽書院에 가서 鄉飲禮⁵¹⁾를 참관하게 하였다.

英祖 28년 壬申(1752) 48歲 3월에 ‘奉先立議’를 지었다. 선생이 門中の 長少들과 함께 모두 智妙에 모여 辛亥節目⁵²⁾을 修補하여, 매년 重九에 講睦하는 모임을 가지기로 정하였는데, 그 차례와 규범은 司馬溫公⁵³⁾의 [書儀]를 참조하고 洛閩⁵⁴⁾의 格言과 東國 賢人の 가르침을 취하고, 追遠敦宗의 義⁵⁵⁾를 밝혔다.

北斗七星의 第1星에서 4星까지를 璿璣, 5星에서 7星까지를 玉衡이라 한다. 英祖 8년(1732) 8월에 ‘璿璣玉衡’을 이룩했다.

50) 自彊不息 : 스스로 힘차게 노력하되 쉬지 않는 것을 말한다. 『易經 乾卦象傳』 ‘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본받아서 스스로 굳세어 쉬지 않느니라)

51) 鄉飲禮 : 온 고을의 儒生들이 모여서 揖讓의 禮를 지켜 술을 마시던 잔치. 鄉飲酒禮라고도 한다.

52) 辛亥節目 : 英祖 7년(1731) 辛亥 27세 때, 2월에 奉先節目并序를 지었다. 의식예절을 나눈 것인데, 모두 10여조로 짜여 있다.

53) 司馬溫公 : 송나라의 학자·정치가(1019~1086). 성은 司馬, 이름은 光. 철종 때 門下侍郎 王安石의 新法과의 對決은 역사상에 유명하였다. 죽은 후에 太師溫國公에 추증되었으므로 司馬溫公이라고도 하며, 諡號를 文正. 元祐 元年(1086) 閏 2월에 溫公이 宰相이 되어 靑苗法·免疫法을 폐지하였다. 사마온공은 涑水에 살았으므로 涑水先生이라 하였으며, 『資治通鑑』 『獨樂園集』 『書儀傳家集』이 있다. 『古文眞寶』 後集에 온공이 지은 「獨樂園記」가 전한다.

54) 洛閩 : 宋의 道學을 학자의 고향에 의해 붙인 이름이다. 程明道·程伊川 형제는 洛陽 사람, 朱子是 閩中 사람이므로 洛閩, 또는 ‘洛閩之學’이라 한다. ‘濂洛關閩’이란 것은 ‘周濂溪·程明道 程伊川·張橫渠·朱晦庵의 學’ 곧 ‘周·程·張·朱의 學’을 뜻한다.

55) 追遠敦宗의 義 : 追遠은 조상의 미덕을 그리며 제사를 공경히 하는 것이다. 『論語 學而篇』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初喪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운 데로 돌아갈 것이다.) 敦宗은 一家間에 인정이 두텁고 화목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祖上의 美德을 衷心으로 그리며,

그리고, 그 跋文에 “조상을 받드는 도리는 本末이 있는데, 愛敬⁵⁶⁾의 열매는 그 근본이요, 節文⁵⁷⁾의 갖춤은 그 끝이다. 그 근본이 없고서야 그 끝이 있을 수 없으니, 本末 곧 愛敬과 節文을 겸해서 이룬 뒤에라야 奉先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英祖 32년 丙子(1756) 52歲 12월에 諸生들을 北溪에 모이고 月朔講을 열었다. 이듬해 4월에 北溪에 갔는데, 諸生들이 肄業⁵⁸⁾하고 있었으므로, 선생이 ‘體認操存 篤實悠久⁵⁹⁾’라는 여덟 글자로서 면려하였다.

英祖 47년 辛卯(1771) 67歲. 2월에 學齋를 세웠고, 3월에 <孝悌堂銘>을 지었다. 선생이 여러 宗親들과 함께 참판공의 祭堂을 지어서 ‘孝悌’라고 하고, 봄가을 正祭의 儀節을 정하고, 孝悌堂에서 [家禮]를 강론하였다.

正祖 10년 丙午(1786). 82歲. 戊午日에 여러 친척들이 모시고 앉은 중에 선생이 말하기를, “先祖의 유서 중에 ‘敦行誼 勤文學’⁶⁰⁾으로써 거듭 당부하였으니, 반드시 이 가르침을 새겨 아침·저녁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儒家의 기품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從弟 興溥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大耋의 병환이 이처럼 심하신 데도 고통이나 신음소리가 없으시고, 늘 기상의 화평함과 動止의 안정함을 볼 수 있으니 평일에 素養의 힘을 더욱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一家間에 인정이 돈독한 正路’를 말한다.

56) 愛敬 :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 『孝經 天子章』, ‘愛敬盡於事親’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부모 섬기는 데에 다한다.)

57) 節文 : 사물을 알맞게 꾸며 品節文章 하는 것. ‘品節文章’의 文은 文飾의 뜻. 『史記 叔孫通傳』, ‘禮者因時世人情 爲之節文者也’ (예라는 것은 당시의 人情을 따라 절문하는 것이다.)

58) 肄業 : 학문을 익히고 강습하는 것.

59) 體認操存 篤實悠久 : 體認은 확실히 터득함을 말한다. 操存은 『孟子』의 ‘操則存舍則亡’ 곧 사람의 양심은 바르게 조절하여 지키면 존재하지만, 버리고 돌보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60) 敦行誼 勤文學 : 方正한 품행을 도담게 하고 문학을 부지런히 닦는 것.

3. 思想

1) 出處觀

晩年에 門人에게 말하기를 “내가 15·6세 때에 書堂에서 글을 배웠으나, 가르치는 것이 모두 과거시험을 보는 속된 말뿐이어서 마음속으로 늘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孟子에 나오는 ‘어질면서도 그의 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며, 의로우면서도 그의 군주를 뒤로 하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⁶¹⁾는 글귀를 읽고는 비로소 聖賢들이 후세에 전한 거룩한 교훈은 다만 仁과 義만이 있음을 알았다. 나의 志業이 조금 방향을 안 것이 대개 여기에서 발단되었다.” 고 하였다.⁶²⁾

18歲 가을에 鄉解에 나아가 生員 初試에 합격하였으나, 선생은 일찍부터 求道의 뜻이 있었으며, 비록 아버지의 命으로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⁶³⁾

25세 때 試圍에 들어가 있었는데 둘째 동생 草廬公 興漸의 병환이 위독해 지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지들에게 구원을 청했는데, 모두 科文을 지어 올리는 일에 골몰해 있어서 급한 일을 구원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선생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名利가 있는 곳엔 人情이 없어지기 쉬우니 처지를 바꾸어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는가”하고 드디어 과거를 廢할 것을 청하니 通德公이 허락하였다.

그 전에 考官⁶⁴⁾이 關節⁶⁵⁾으로써 약속코자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임금을 섬

61) 『孟子 梁惠王 上』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어질면서도 그의 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며, 의로우면서도 그의 임금을 뒤로 하는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

62) 年譜 16世條

63) 年譜 18歲條

64) 考官 : 講經科와 武科를 맡아 보던 試官.

65) 關節 : 要路에 있는 이에게 뇌물을 주어 잘 부탁하는 것. 通鑑에 “당나라 사람들이 서로 부탁하는 것을 ‘關節’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도 오히려 그러하다. ‘唐人謂 相屬請爲關節 此語至今猶然’라는 말이 있다.

기고자 하면서 그 正道를 그르쳐야 되겠는가”라고 하시고 드디어 사양하셨다.

이와 같이 經傳과 性理學을 중심으로 하여 오로지 學問만 계속하였을 뿐이지 科文을 공부하여 科擧를 볼 목적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70세가 넘어서 學問과 德望이 朝廷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벼슬이 내리게 되었다.

74歲. 景慕宮 守奉官, 莊陵參奉, 童蒙教官

78歲. 掌樂院 主簿

79歲. 工曹佐郎

80歲. 翊衛司 翊贊

82歲. 通政大夫에 오름

그러나 끝까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屢次 命을 받았으므로, 항상 蹶然히 겸손해 하고 두려워하였으며, 貴人의 복색을 입기를 싫어하였으나, 大槩로 등급이 陞資⁶⁶⁾되자 “내가 부모가 물려 주신 몸을 받듦에 감히 삼가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임금께서 나이 많다고 해서 臣을 이렇게 對偶하시니, 신이 과연 늙었으므로 이 職責은 실로 本分에 合當하다.” 라고 하고, 드디어 가져온 服色으로써 祠堂에 告하고 木纒⁶⁷⁾은 버리면서 “이것은 좋은 구경거리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正祖 14년 庚戌(1790) 正月에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經筵 參贊官을 贈職함으로써 선생의 학문 정신과 崇高한 선비정신을 후세에 영원히 기리고, 모든 이들의 生活 指標로 삼도록 하였다.

66) 陞資 : 정3품 품계에 오르는 일.

67) 木纒 : 나무로 구슬같이 만들어 옷칠을 하여 펜 갓끈을 말한다.

2) 出天의 大孝

참된 선비라면 누구나 다 孝子 아닌 사람이 없겠지만 선생의 出天 大孝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본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特殊한 孝行의 대강을 간추려 본다.

2歲 때에 어머니가 젖에 중기가 나서 젖을 먹을 때면 아파하는 기색이 있었으므로, 선생이 보고 다시는 젖을 빨지 않았다.

31세 3월부터 通德公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는데, 선생은 晝夜로 옷과 띠를 벗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았으며, 병의 증세, 조식 식사, 수면 등을 자세히 살피고, 大便을 맛보고서야 服用하는 藥의 加減 정도를 시험하여 드리기를 다섯 달 동안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通德公이 별세하자 물과 간장을 먹지 않은 지가 3일이나 되었으나,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襚衣와 棺槨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였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죽을 먹고, 거적에서 잠을 자며, 주야로 빈소를 떠나지 않았고, 奠을 올리고哭하는 여가에도 오직 禮書를 참고하였고, 바깥의 일에는言及하지 않았다.

廬幕을 무덤 앞에 짓고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키면서 조식으로 곡을 하였는데, 비·눈·추위·더위에도 그만두지 않았으며 朔望⁶⁸⁾ 때는 돌아와서 几筵⁶⁹⁾에 奠을 올리며, 3년 동안 衰經⁷⁰⁾을 벗지 않았고, 쌀밥과 좋은 반찬을 먹지 않았으며, 한 말씀도 가정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 걸음도 집 바깥을 나가시지 않았다.

12월에 어머니의 長壽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 해에 母夫人이 八旬을 채웠으니, 물건과 격식을 갖추고 친척·친구들이 모여 잔을 들고 장수를 기

68) 朔望 : 매월 초하루·보름날.

69) 几筵 : 죽은 이의 魂帛이나 神主를 모셔 두는 祭床과 자리.

70) 衰經 : 喪服의 이름. 衰는 喪服. 齊衰·斬衰의 상복이 있다. 經은 상복을 입을 때, 두르는 腰經과 首經을 말한다.

원하였다.

母夫人은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해져 질병이 더욱 깊어졌는데, 선생이 주야로 옆에서 모시며 음식은 점검하여 때에따라 적당하게 하고, 작은 노구슬과 燔鐵⁷¹⁾, 鑪炭⁷²⁾ 등을 갖추어 방 안에서 진지를 잡수시게 하는데 그 일을 직접 담당하였다.

고기와 脩⁷³⁾, 진미를 많이 준비하여 원기를 기르는 물품을 갖추어서,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곧 다른 음식을 드리시며 음식을 낼 때마다 반드시 손을 씻었고, 밥을 물린 후에는 친히 그릇을 씻었는데, 비록 매우 좁거나 깊은 밤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름·밀랍을 많이 준비하여 밤새도록 불을 밝힘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잠들었을 때에 숨결을 살폈다.

59歲 때 6월에 아들 周鎭이 沒하였으나, 선생이 母夫人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음식을 들고 담소하며 일찍이 슬픈 빛을 띠지 않았다.

61歲 潤2월에 조카 恒鎭이 司馬試에 登科하였다. 모부인이 오랫동안 침상에 있었는데, 登科 소식을 들은 날 아주 기뻐하며 일어나 앉으니, 선생이 "이 사람은 효성스러운 손자이다." 라 하고 드디어 몸소 잔치를 베풀고, 논밭과 노비를 떼어 주어 그 기쁨을 나타내었다.

61歲 때 母夫人이 계속 아파하며 실사를 하니, 선생이 매일 밤 부축하고 살피면서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자지도 않았으며, 몸소 약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드렸으며, 방안에 溷機·木函·承矢·襁褒 등을 갖추어 두고, 늘 새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그것들을 직접 씻었으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종들에게 시키지 않았다. 늙은 나이에 힘이 가끔씩 부쳐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작은 나무로써 이마를 받치고 풋잠을 잤으며, 大故⁷⁴⁾를 당하고는 愼終과 致哀를 前喪과 같이 하였으며, 장사를 치르기 전 여섯 달 동안 추운 겨울을 겪으면서도 밤낮으로 殯堂을

71) 燔鐵 : 지짐할 때 쓰는 무쇠 그릇. 煎鐵.

72) 鑪炭 : 난로의 숯불.

73) 脩 : 고기를 저미어 만든 반찬으로 포를 말한다.

74) 大故 : 아버지의 喪을 말한다.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葬地를 河陽에 정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금지 구역이라고 가로막으면서 訟事를 官廳에 제기하였으나, 도리어 村民들이 중죄를 받고 죄를 스스로 自服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땅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편히 모시는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곳을 버리고 다시 先山에 정하게 되었다.

喪輿를 만듦에는 朱子の 小方牀의 제도에 따랐고, 관을 받드는 법을 미리 가르쳐서 연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4일 전 맑은 날에 發靱을 하였는데, 선생은 말을 버려 두고 걸었으며, 험한 길을 만나면 손으로 관을 붙잡았고, 늘 상여꾼들에게 절을 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다.

장례가 끝나자 묘 아래에 움막을 엮고 아침 저녁으로 슬퍼하면서 묘를 살폈으며, 오직 朔望에는 돌아와서 빈소에 奠을 드리고 잘 때에도 經帶⁷⁵⁾를 풀지 않으시고, 집안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거친 밥과 소금, 물 등으로써 三年喪을 마치었다.

言行錄에 있는 弟子 柳인⁷⁶⁾의 기록을 살펴 보면 선생의 孝道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아래 提示한다.

‘先生之學 其發源在於孝 然非如世之以孝聞者 止於一善而已 蓋先生 生事葬祭 無一毫虧欠 又以爲一言一事之或失其理 便不是全其所修之於身 而動合繩墨 發之於事 而化及鄉井 世之人語孝之大 全必稱先生也’

(선생의 학문은 그 처음 근원이 효도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효로써 알려진 사람들이 한가지 착함에 그칠 뿐이었던 것과는 같지 않다. 대개 선생은 살아 섬김과 장례 제사 등에 털끝 만한 흠결도 없었으며, 또 한 말씀 한 가지 일이라도 혹 그 이치에 어긋나면 곧 부모에게 받은 것을 온전히 합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75) 經帶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首經과 허리에 두르는 腰經.

76) 柳인 : 선생의 문인. 자는 景長, 豐山人.

몸을 닦아서 행동이 법도에 합당하게 하였고, 사업을 시작하여 교화가 고
을에 미치게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크고 완전한 효도를 말함에 반드시
선생을 일컬었다).

선비나 학자로서 부모께 효도하는 방법과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
람은 없지만, 이것을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써 實踐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國家에서 正祖 13년 己酉(1789) 6월에 孝行으로 旌門을 명
하였던 것이다. 선생의 孝行은 특히 現代人으로서 看過할 수 없고, 또 看過해서
는 안된다고 하겠다.

3) 崇祖

선비 생활에 있어서 崇祖 또한 孝道와 함께 必須 不可缺한 것이다. 선생의 崇
祖 思想과 實行 事例를 大綱 들어 본다.

6歲 때 집안에 祭祀가 있으면 반드시 어른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 參拜하였다.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 外家에 갔는데, 新穀을 祠堂에 薦新할 때, 主櫓⁷⁷⁾을 덮
고 있던 베가 오래되어 먼지와 때가 묻은 것을 보고는 곧바로 입고 있던 새 명
주 옷을 칼로 끊어 내어 그것으로 主櫓를 바꾸어 덮으라고 하였다.

英祖 7년 辛亥(1731) 27歲 2월에 [奉先節目并序]를 지었다.

英祖 14년 戊午(1738) 34歲 2월에 龔淵 옛 터를 가서 보았다. 龔淵은 八
公山의 龍門洞 아래 시냇가에 있다. 臺巖公이 仁祖 庚辰年(1640) 孝宗이 潛
邸⁷⁸⁾ 때에 師傅로 천거되어 제수 받았으며, 甲申年(1644)에 이르러 明나라가
망하자 이 龔淵위에 亭子를 지었는데, 泉石이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이 곳에 숨
어서 세상을 마쳤다. 세월이 오래되자 亭子가 허물어졌으므로, 선생이 슬퍼하여
다시 집을 지을 뜻을 가지고, 여러 동생들과 함께 두루 살핀 후 해가 저문 뒤에

77) 主櫓 : 神主를 모신 독.

78) 潛邸 : 世子가 아닌 王子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집.

돌아왔다.

10월에 臺巖公의 祠版을 別祠에 奉安하였다. 통덕공이 臨終 때 선생에게 말하기를, “우리 高祖는 선비의 덕행이 斯文에 있고, 두터운 은택이 자손에게 있어서, 士林들이 일찍이 제사를 지내드리고자 한 의논이 있었으나, 令甲⁷⁹⁾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내가 죽으면 禮에 따라 마땅히 祧遷해야 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별도로 祠堂을 세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는데, 선생이 널리 禮家에게 물어서 그 遺志를 이루었다.

英祖 19년 癸亥(1743) 39歲, 8월에 네 계절마다 正祭를 정하여 행하였다. 경신(庚申)년부터 봄·가을에 正祭를 행하였는데 이 때부터 春分과 秋分, 冬至와 夏至에 네 계절마다 正祭를 행하였다.

祭祀 儀式은 한결같이 [家禮⁸⁰⁾]를 따라서, 7일을 戒⁸¹⁾하고 3일을 齋戒하여 머리 빗고 목욕하고 손톱을 깎았으며 바깥의 일에 접하지 않았고, 물품에는 모두 친히 살펴서 지극히 청결하게 하였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음을 精一하게 하여 공경과 정성을 지극히 하였고, 그 다음 撤床 할 때에는 虛位를 향하여 단정히 팔짱을 끼었으며, 제사를 마쳤어도 종일토록 齋服을 입고 끝까지 공경을 다하였다.

英祖 20년 甲子(1744) 40歲, 9월에 여러 아우들과 함께 助祭庫를 세웠다. 하루는 禰祀를 행하고 울면서 여러 아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늘 함께 살면서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였으나, 古今이 달라 끝내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참으로 애통할 만한 일이다. 사람의 정에는 새로운 사물을 보게 되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니, 어찌 서로 시절마다 물건을 내고 祭田을 정하여 함께 효도하는 뜻을 이루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규칙이 정해지자 先公의 孝友를 따라 위로는 祖父·曾祖·高祖에 이르고 곁으

79) 令甲 : 法令 즉 政令.

80) 家禮 : 『朱子家禮』의 준말. 臨谷 申滉이 주자가례를 언해한 『가례언해』 1권이 있고, 鏡湖 李宜朝가 주자가례에 대하여 고금의 예설을 수집하여 주해를 붙였다. 10권 10책

81) 七日戒 : 齋戒. 『禮記』 ‘七日戒’

로는 伯叔父母에게 까지 미치니, 그 창고를 '助祭'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우리들이 늘 伯叔父母를 부모같이 섬겨서 집안의 모범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였으나, 모두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 지금 薦享하는 祭需들은 모두 한 창고에서 내어서 조금이나마 추모하는 정성을 펴면 유감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英祖 29년 癸酉(1753) 49歲 4월에 報本齋를 세웠다. 선생은 일찍이 別祠 앞에 祭堂을 짓기 시작하여 이 때 공사를 끝냈는데, 그 방의 이름을 致愨이라 하고, 당의 이름을 報本이라 하였으며, 曹恥齋와 李大山이 당의 記文을 지었다. 9월에 智妙洞에 重九會를 세웠다. 뒤에 九會堂을 香巖 先塋 곁에 세웠다.

英祖 39년 癸未(1763) 59歲 3월에 臺巖公 遺文을 輯成하였다. 遺文은 당시 畸翁 朴玃衢가 빌려 갔다가 화재를 당해 소실되었으므로, 선생이 여러 사람 집에 남아 있는 글을 널리 모아 책을 만든 것이다.

4) 睦婣 任恤

33歲 때 10월에 外大父 進士公의 무덤에 성묘를 했다. 당시에 外家가 매우 가난하여 선생이 祭田을 나누어 주었으며, 매년 忌日이 되면, 또 물건을 보내어 제사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35歲 2월에 夫仁洞에 洞約을 세우고, 先公, 卹貧이라는 두 창고를 설치하였다. 夫仁洞에는 모두 4개의 마을이 있는데, 바로 蠶淵이 있던 곳이다.

선생이 일찍이 그 지역을 往來하면서 백성들이 생활에 窮乏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救濟하려는 뜻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약속을 하여, 朱子의 社倉⁸²⁾제도를 본떠서 契를 세우고, 풍년과 흉년에는 그 利息을 달리하여, 上下가 마음을 합하여 행한 지 몇 년 만에 貯蓄이 이미 많아지자, 드디어 밭과 곡식을 사 들여서 해마다 남는 것을 내어 마을 사람들의 租稅 수입으로 응하게 하였는

82) 社倉 : 饑饉 때, 貧民들의 救濟를 목적으로 각 고을에 비치했던 곡식 창고.

데, 그 창고를 '先公'이라 하고, 또 마을 사람들 중 빈천하고 밭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밭을 나누어 주어, 흉년을 당하면 救恤하기로 하고 그 창고를 '卹貧'이라 하였다.

藍田鄉約⁸³⁾을 때에 맞게 參酌하여 春秋로 講信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마을이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백성들의 풍속이 느리고 어리석었는데, 선생이 禮讓으로써 인도하고 賞罰으로써 規制하여, 행한 지 몇 년만에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잘 순화되어 남녀가 길을 달리하며, 노인들이 짐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는 것에까지 이르렀다.

49세 4月 從弟 興溥를 데리고 함께 살았다. 그 때, 흥부가 喪配하고 매우 가난하여 쌓인 빚이 있었는데, 선생께서 재물을 내어 보상해 주고 함께 생활을 하였다.

英祖 41년 乙酉(1765) 61歲 潤 2月 〈夫仁洞公田碑文〉을 지었다. 비문은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은 아주 궁벽하고 사는 백성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꾸밈과 거짓이 없다. 우리 선조인 臺巖 선생이 蠶淵 위에 隱居하시며, 民俗을 살펴서 바로잡아 遺風이 지금까지 쇠퇴하지 않으니, 내가 옛날의 洞約을 다시 닦고, 시대에 맞게 參酌하여 해마다 한 번 모여 강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모두 愛親·忠君의 떳떳

83) 藍田鄉約 : 우리 나라 향약의 모체는 중국의 藍田呂氏鄉約인데, 중국 陝西省 藍田縣에 있는 呂氏 門中에서 이룩하였으므로 흔히 남전향약이라고도 한다. 이 남전향약은 北宋 말에 남전현의 여씨 一門中에 道學으로 명성을 떨친 大忠·大防·大鈞·大臨 등 4형제가 일가 친척 뿐만아니라, 향리 전체를 教化 善導하기 위해 처음 만든 향약이다. 이 여씨향약은 4조로 되어 있는데, ①德業相勸 ②過失相規 ③禮俗相交 ④患難相恤이다. 이것을 뒤에 朱子가 加減·增補하고 더욱 完備하여 朱子大全에 실었다. 향약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실행되기는 조선 太祖 7년(1398) 경이었던 것 같다. 향약이 사회 風教를 美化하고 民情을 醇化하여, 도덕을 숭상하고 相互扶助로 흥업함으로써 명랑 사회를 이룩하는 德化 規約이 되었다. 退溪는 禮安鄉約을 만들어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栗谷은 宣祖 4년(1571) 淸州牧使 때, 西原鄉約을 만들어 실시하였으며, 울곡이 벼슬을 그만 두고, 해주 石潭에 隱居하고 있을 때, 海州鄉約과 海州一鄉約束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향약 중에 가장 잘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약은 仁義道德을 宣揚하고 地方自治의 德化와 相互協同, 이웃 사람들을 복돋우는데 크게 寄與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한 인간 常道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돌아보면 스스로 닦는 성실함이 없고, 또 先富의 제도가 없어서, 민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마도 쉽게 의론할 수 없었다. 그래서 洞約者 가운데 넉넉한 자와 약속하여 先公과 便民의 도를 꾀하고, 洞田의 한 부분을 팔아, 해마다 保長하기를 수십 년에 이르니, 水田이 거의 백여 斗落이 되고, 곡물을 모은 것이 거의 數百斛⁸⁴⁾이 되었다. 그 밭을 '公田'이라 하고, 창고를 '公庫'라 하였다. 이것으로 約中의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에 충당하니, 이것은 거의 井田制⁸⁵⁾ 중에 百畝를 公田으로 삼은 뜻에서 취한 것이었다.

드디어 강당 아래에 특별히 큰 돌을 세워 사실을 새기고, 영구히 나가도록 도모하니, 아 上下人의 후손들은 진실로 오늘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고, 명분을 되돌아 보고 義를 생각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奉公하고, 감히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는다면 집에서는 유능한 자식이 되고, 나라에서는 선량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윤리에 어긋난 자식과 잔악한 백성의 律을 면치 못할 것이니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이다.”

4. 學問

선생의 학문은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尙書] [周易] 등 經傳 중심의 學問이었고, 心經 近思錄 太極圖說 二程全書 朱子書등 에 의한 心學 곧 居敬 窮理 克己 存誠의 학문이었음은 어느 선비들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敬工夫가 가장 核心이라 할 수 있다.

言行錄에 있는 弟子 崔華鎮⁸⁶⁾ 공의 기록을 본다.

84) 斛 : 1곡은 열말(10斗)의 용량, 즉 한 섬.

85) 井田制 : 周代에 사방 一里(九百畝)의 농지를 井자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公田, 주위의 8구역을 私田이라 하였다. 사전은 8농가가 하나씩 경영해서 먹고 공전은 8농가가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바치게 했던 제도.

86) 崔華鎮 : 百弗庵의 셋째 동생인 崔興建의 아들로, 선생의 조카이며 문인이다. 자는

‘自少 絕意外慕 專心爲學 以小學爲基址 大學爲問架 次及於語孟中庸 而補之以心近朱書 爲融貫會通之地 其用功也 雖不見聞 而常存敬畏 雖在幽獨 而愈加謹嚴 無一息之或間 無一念之或差 出言制行 自不離於規矩準繩 而有闡然日章之美矣’

(젊어서부터 바깥 일⁸⁷⁾에는 뜻을 끊고 오로지 학문하는데만 마음을 두어서(小學)을 기초로 삼고, [大學]을 問架⁸⁸⁾로 삼았으며, 다음으로 [論語] [孟子] [中庸]에 미쳤으며, [心經] [近思錄] [朱子書]로 보충하여, 흰하게 꿰어 이해하고 통달하는 터전으로 삼았다.

그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비록 보고 듣지 않더라도 언제나 敬畏하는 태도를 가졌고, 비록 그윽히 홀로 있더라도 더욱더 삼가고 엄숙히 하였으며, 잠시라도 혹 틈새가 없었고, 한 생각도 혹 어긋남이 없었다. 말하고 행동함이 저절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어두운 가운데 날로 빛나는⁸⁹⁾ 아름다움이 있었다.)

30歲 때 [心經]을 읽고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要諦는 [心經]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평소에 배움을 잃은 사람이라도 熟讀하고 玩賞하게 되면 힘을 얻는 곳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39歲 때 [性理大全]을 보았는데, 黃勉齋의 ‘居敬⁹⁰⁾’으로써 그 근본을 세우고, 窮理⁹¹⁾으로써 그 眞知를 터득하며, 克己⁹²⁾으로써 자기를 단속하여 사리사욕을 없

士久이고, 호는 漆室이다. 筓錄이 있다.

87) 外慕 : 자기의 修身과 學問 외의 富貴功名 같은 것을 말함.

88) 問架 : 칸살의 엮이나 글의 짜임새

89) [中庸 33章] ‘君子之道 闡然而日章’

90) 居敬 : 朱子學의 수양의 주안점. 居敬은 內的 修養法으로서 반성하고 게으르게 하지 않고, 정신을 통일하여 심신을 닦는 것이며, 窮理는 外部 수양법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터득함을 말한다. ‘仁은 心의 道요, 敬은 心의 貞’ 『朱子大全』卷32이라 하였다. 敬하면 心氣가 眞定해진다는 말은 [易經]에 ‘敬以直內’와 뜻이 같다. 居敬窮理는 程朱의 수행 방법으로서 서로 연관한다. 주자의 ‘거경궁리’는 『中庸』의 尊德性과 道問學에 해당한다. 그 ‘거경궁리’는 存仁行仁의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퇴계도 학문의 궁극목적은 求仁에 두었으며, 그 구인 방법으로 거경궁리를 말한다. 퇴계는 주자의 存養省察의 방법을 승계하였다. ‘敬以直內를 日用 제1로 삼았다.’ [退溪集 卷29 答金而精] 그렇게 主敬 存養省察하면 理明心定하므로 窮理가 極盡해 진다는 것이다.

91) 窮理 : 朱子學의 수양의 주안점 중에, 窮理는 외부 수양법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터득함을 말한다. 이에 비해 居敬은 내적 수양법으로서 반성하고 게으르게 하지 않고, 정신을 통일하여 심신을 닦는 것을 말한다.

92) 克己 : 자기 욕심을 굳은 의지로써 이겨낸다, 자기를 단속한다, 사리사욕을 극복한

애고, 存誠⁹³⁾으로써 그 실상을 이룬다'는 글귀를 매우 좋아하여 자리 오른쪽에 써서 붙여 놓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았다.

41歲 7월에 [延平答問]과 [勉齋集]을 보고 말하기를, “두 책을 熟讀하여 玩味해 보니 학문이 절실하여, 朱子書와 함께 합치는 곳이 있어 매우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42歲 4월에 [大學]을 읽고 <讀大學箴>⁹⁴⁾을 짓고, 또 시를 지었는데

夢覺關頭得一覺 꿈을 깨는 關頭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니
鬼人關上乃爲人 귀신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되었구나
用心自此卻須正 마음씀을 이로부터 바르게만 한다면
何患不能修是身 어찌하여 修身할 수 없음을 근심하리오

라고 하였다.

43歲 6월에 數谷庵의 小敍를 짓고, 거처하는 집의 이름으로 삼았다. 좌우에 敬자를 크게 써 놓고 항상 보면서 경계하고 반성하였다. 뒷날에 牌에 새겨서 벽에 걸어 두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敬字工夫는 먼저 容貌와 辭氣를 制約하는 것으로써 그 마음 속을 기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敬은 별도로 한 가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만 放過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가까이함을 두려워 한다는 설이 가장 사람들을 쉽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44歲 정월에 薛敬軒의 [讀書錄]을 보았으며, 曹恥齋와 李大山이 찾아 와서

다는 뜻. 『論語 顏淵篇』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자기를 단속하여 사욕을 이겨내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인이다. 하루하루 克己復禮하면 천하가 仁義의 누리로 돌아갈 것이다)”

93) 存誠 : 정성을 다함. 誠은 眞實無妄을 말하는 것이기에 天理의 本然이다. 『中庸』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誠은 하늘의 道이고, 誠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 誠한 자는 애쓰지 않아도 맞아지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져, 조용히 道에 맞는 이가 성인이다. 誠해지려고 하는 이는 善을 가려 굳게 잡는 자다)

94) [文集] 卷八

[小學]과 [大學]을 강론하였는데, 일기에 기록하기를, “景文의 言論과 志氣는 조금도 문장과 營利에 구애를 받지 않고, 善을 밝히고 도를 닦는 지경에 똑바로 서서, 몸소 행하는 것으로써 제일의 뜻으로 삼으니, 참으로 나의 유익한 벗이다.” 라고 하였다.

磻溪 柳馨遠의 [隨錄]⁹⁵⁾을 보고는 근세 經倫의 학문을 일컬음에 [隨錄]이 최고라고 하였다.

[孟子]를 읽고는 志士溝壑⁹⁶⁾의 글귀를 좋아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굳은 뜻을 두어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 지금 露臥衢路⁹⁷⁾하여 닳새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바람과 서리와 얼음과 눈이 또 잇따라 내린다면, 이 때에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는가. 點檢이 여기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진보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50歲 정월에 桐華寺에서 [心經]을 읽고, 日記에 “閒養의 계획을 위해서 [心經]을 들고 山房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깊이 玩味하니, 참으로 맛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였다.

58歲 3월에 [朱子大全]을 읽고 말하기를, “[朱子大全]은 과연 땅을 지고 바다를 머금은 것 같아서 없는 것이 없다. 예전에 연구한 것 중에서 의심나는 것과 사색해 보고 믿지 못한 것들을 [朱子大全]에서 質正한다면, 곧 存心·制事·處家·接人의 방도와 저 語默·動靜·辭受·出處의 義가 모두 백세의 모범이 될 것이므로, 익숙히 읽고 깊이 생각하며 밤낮으로 수용해서, 음식과 裘

95) 磻溪隨錄 : 磻溪 柳馨遠 (1622~1673)이 지은 책으로,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과 경제적 혁신 방법론을 제시, 유교적 윤리와 정치의 시정을 사회개혁의 전제로 하고, 이를 경제 관계에 결부시켜, 국가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있음.

96) 志士溝壑 : 志士는 仁道를 具現하고자 굳은 뜻을 갖고 진력하는 선비. [孟子 滕文公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곧 지사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정의를 위해 강경하게 버티어 나가므로, 마음 속에는 언제나 죽어서 시궁창에 버려질 각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 지사는 정의·仁道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97) 露臥衢路 : 노와는 밖에서 잠자는 것. 露宿·露寢·露次. 구로는 갈림길. 사방으로 통하는 길. 衢道·衢途. 사방으로 통하는 네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을 나타낸 말.

褐98)같이 여긴다면,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총명함이 부족하고 應接함이 번거로와 그 처음과 끝을 익숙히 살피지 못하거나, 그 중요한 것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깊이 한스럽다.” 라고 하였다.

62歲 11월에 [大學]을 보고 말하기를, “曾子는 평소에 몸소 실천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참된 것이 쌓이고 힘쓴 것이 오래되어서 三綱八條99)를 설명한 것은 다만 이 일찍이 공부하는 절차를 말한 것이다. 그 門路100)를 지시함에 가장 친절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63歲 5월에 [太極圖說]101)을 보고 말하기를, “動과 靜이 서로 뿌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생각건대 動은 靜을 바탕 삼기 때문에 또한 主靜102)이라는 두 글자가 나온 것이니, 배우는 자들이 더욱 體認103)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喪中에 있으면서 슬픔을 잊지 않으려면 고요한 데에 나아가 書冊을 취하여 敬字上에 힘을 써서, 더욱 周子104)의 主靜의 뜻을 깨닫는 데에 더욱 그 뜻이 있다.” 라고 하였다.

66歲 5월에 [心經]을 읽고는 日記에 “神氣가 조금 나아져서 [心經]을 읽으니, 가슴 속에 시원한 기운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하였다.

70歲. 9월 龔淵에서 [心經]·[西銘] 등서를 강론하고 배우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퇴계 선생은 [心經]을 부모처럼 아끼고 神明처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

98) 裘褐 : 가죽옷과 굵은 베옷.

99) 三綱八條 : 『大學』의 三綱領과 八條目을 말한다. 三綱領은 ‘明明德·新民·止於至善’이며, 八條目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100) 門路 : 학문에서의 나아가는 길.

101) 太極圖說 : 宋의 濂溪 周敦頤 先生이 지은 性理學書, 1권. 無極에서 太極을 거쳐 陰陽五行의 原理, 곧 우주 및 인류·만물의 생성 원리와 발전 과정을 圖解하고, 거기에 설명을 붙였다. 이 태극도설은 宋學의 淵源이며, 朱子의 『近思錄』 개권 제1에 실려 있다. ‘無極而太極’이라는 것은 唐의 杜順和尚의 화엄법계관의 말로 周子가 襲用한 것이다.

102) 主靜 : 妄想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자면 靜坐가 緊要하다. 宋의 道學者 周濂溪 등이 首唱한 修養法이다. 周濂溪의 太極圖說에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立人極焉’이라 했다.

103) 體認 : 體驗하여 確然히 진리를 據得함을 말한다.

104) 周子 : 宋의 道學 六賢 중의 한 사람. 이름은 敦頤, 호는 濂溪. 『太極圖說』·『通書』 등을 지었음.

말은 참으로 거짓이 없다. 또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心經]을 읽으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西銘〉을 읽은 뒤에, 하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오묘한 이치의 절실한 것임을 알았다. 謝上蔡¹⁰⁵⁾의 ‘오직 그 仁 때문에 그 이치가 한결같음을 알고, 오직 그 義 때문에 그 분수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고 한 것은, 이 책을 잘 살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73歲. [周易]을 보았는데, 만년에 [周易]을 좋아하여 배우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周易]은 보기가 가장 어려우니, 오직 내 마음의 義理를 먼저 밝힌 후에 辭에 달통하여 때에 따르고 道를 좇아 오묘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74歲. 정월에 諸生들을 龔淵에 모아 강론하고 끝나자 조카 宇鎮, 華鎮을 머무르게 하여, 제생들과 함께 학업에 힘쓰도록 경계하여 말하기를, “學問이라는 것은 외우고 읽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스스로의 마음에 나아가 점검하며, 생각이 微微한 곳에 理欲 分界를 분별해서 터득하며, 자기의 사사로움을 따라 나오는 것은 반드시 힘써 없애야 할 것이고, 性命¹⁰⁶⁾을 따라 나오는 것은 반드시 확충하여,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그 사이에 용납할 수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공부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한갓 講說하는 데에만 힘쓴다면 이는 口耳의 공부일 뿐이니, 귀하게 여길만한 것이 없을까 두렵다.” 라고 하였다.

75歲. 2월에 北溪精舍에서 宋南村을 만나 수일 동안 [心經]을 강론하였고, [通書]를 읽고는 李經祿에게 편지하기를, “周濂溪가 ‘靜無而動有至正而明達¹⁰⁷⁾’ 이라고 한 체제는 스스로 내 몸에 있는 것이니, 반드시 깊이 연구하여 살펴야

105) 謝上蔡 : 北宋의 道學者. 이름은 良佐, 程子の 문인으로 程門四先生의 한 사람. 상채학파의 鼻祖이다.

106) 性命 : 天賦의 성질, 또는 天性和 天命을 말한다.

107) 靜無而動有至正而明達 : 周濂溪의 『通書』에 있는 말이다. 靜無而動은 ‘太極圖說’에 말하는 動極而靜, 靜極復動이라는 말과 통한다.

한다.”라고 하였다.

76歲. 11월에 北溪亭舍에서 [中庸]을 강론하고 말하기를, “『中庸』의 下學을 설명한 곳이 작지만 그 門路에 지시해 주는 것은 명백하고 친절하다. 학자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上達을 설명한 곳은 初學者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나, 人事가 다한 곳을 설명한 것은 天理가 지극한 곳으로, 학자가 성인의 지극함으로써 모범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可望이 있을 것이고, 지식도 향상하고 행동도 진보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79歲. 정월에 [太極圖] [西銘] 등을 강론하고 배우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책에 힘을 쓴지 오래되었으니, 대강이나마 이 이치의 근원을 깨달았다. 이 두 책을 [通書]와 함께 그 실체를 깊이 살피면, 혈맥이 관통되는 오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80歲 [朱子書節要]를 보았고, 10월에 [易學啓蒙]을 보았는데, 배우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程子가 말하기를 ‘토끼를 보면 또한 占卦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먼데서 사물을 취하겠는가. 내 몸에 스스로 圖書¹⁰⁸⁾가 있음을 班班히 볼 수 있다. 초학자들은 반드시 제 신상에서 간절히 공부에 착수해야 할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82歲. 정월에 諸生들과 [小學]·[大學]·[西銘] 등을 강론하고 말하기를, “古人的 學問은 다만 [小學] 가운데에서 涵養·成就했으며, [大學]은 다만 格物致知에서 일으킬 뿐이었다. 만약 [小學] 공부가 없이 格致¹⁰⁹⁾를 먼저 한다면, 茫茫해서 根據할 만한 바탕이 없을 것이다. 이는 朱子가 敬 한 글자를 摘出해서 聖學의 成始成終의 功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선생의 弟子들이 기록한 言行錄 몇 구절을 아래에 제시함으로써, 선생의 학문

108) 圖書 : 『周易』과 洪範九疇의 근원이 되는 圖書로서 곧 수리의 祖이다. 『周易 繫辭傳』 ‘天一地二 天三地四 天五地六 天七地八 天九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有五 地數三十 凡天時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109) 格致 : 格物致知의 준 말. 實際的인 事物을 통하여 그 이치를 窮究함으로써 眞知에 이르는 것.

에 대한 綜合的 이해를 돕고자 한다.

‘先生之學 專用力於敬 存此心於莊靜之中 窮此理於彝倫之常 以爲舜跖之分 在於一念天壤之易 差於毫釐兢業之意 不施於造次思辨之工 必謹於細微 主於靜 以御動 制於外以養中 嚮晦宴息而未或怠惰 患難倉卒而未有疾遽 規模大而條理 詳 體用全而本領約 及其英華外宣 面睟而背盎 神清而氣和 望之可知其爲正大 剛明篤實 渾成君子也’¹¹⁰⁾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敬에 힘을 써서, 이 마음을 엄숙하고 정숙한¹¹¹⁾ 가운데 두고, 이 이치를 彝倫¹¹²⁾의 常道에서 궁구하였다. 舜임금과 盜跖¹¹³⁾의 구분이 한 생각에 달려 있고, 하늘과 땅의 바뀔이 털끝만한 차이에서 나온다고 여겨, 조심하고 공경하는¹¹⁴⁾ 뜻을 잠시도 해이하게 하지 않았으며, 생각해서 분별하는 공부를 미세한 데서도 반드시 삼갔다.

靜을 주체로 해서 動을 통솔하고, 바깥 행동(外行)을 제어하여 속 마음(中心)을 길러서, 날이 저물어 편안하게 쉬면서도¹¹⁵⁾ 게으르지 않았고, 患難이 갑작스럽게 닥쳐도 당황하지 않았다.

규모는 크되 조리는 자세하였고, 體와 用이 온전하되 본령은 簡約하였으며, 그 꽃다운 빛이 밖으로 퍼 나옴에 이르러서는, 얼굴은 윤택하고 등은 꽃꽃하며¹¹⁶⁾, 정신은 맑고 기운은 화평하였으니, 바라보면 正大하고 굳세고 밝아서 독실한 저절로 이루어진¹¹⁷⁾ 군자임을 알 수 있다.)

李經祿¹¹⁸⁾

‘그 학문이 卑近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高明한 데 이르렀고, 刻苦에서 시작하여 평이함으로 나아가 彝倫에 있어서는 털끝만큼의 미진함도 용납하지 않

110) [百弗庵先生言行錄] 卷四 類編 學問 李經祿記

111) 莊靜 : 엄숙하고 정숙함. [曾鞏 張氏墓誌銘] ‘夫人爲人 仁厚莊靜’

112) 彝倫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즉 인륜.

113) 盜跖 : 옛날 중국의 큰 도적 이름이다. 9천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橫行)하였다고 전해 진다.

114) 兢業 : 兢兢業業의 줄임말. 항상 조심하여 공경하고 삼간다는 뜻.

115) 嚮晦宴息 : [周易 隨卦] ‘君子 以嚮晦入宴息’ (군자는 날이 저물어 들어가 편안히 쉬는다.)

116) 面睟背盎 : 『孟子 盡心 上 21』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 (군자의 본성은 仁義禮智가 마음 속에 뿌리를 두어, 그 얼굴 빛에 나타남이 睟然이 드러나며, 등에 가득하며 四體에 베풀어져서 사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 행해진다.)

117) 渾成 : 천연적으로 생기어 이루어짐.

118) 李經祿 : 선생의 사위이고 문인이다. 자는 仲綏이고, 호는 巴江이다. 관향은 碧珍이고, 漆谷에 거주하였다.

왔고, 평상시에도 언제나 義理가 流行함을 보았다.

만년에도 오히려 독서를 즐겨, 막 이제 말년¹¹⁹⁾ 조만간인 지경에도 손이나 제사가 있지 않으면 책을 놓지 않았고, 비록 사람을 접할 때라도 酬酌을 그치면, 곧 눈을 감고 앉아서 언제나 글을 암송하는 모습을 하였다.

德에 나아가는 공부와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이 비록 蘧瑗¹²⁰⁾이 60세에 변하고¹²¹⁾ 衛武가 90세에 경계한 것¹²²⁾이라 할지라도 거의 이 보다 더함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니, 숨이 남아 있는 한 이 뜻이 조금도 해이해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지 아니겠는가.

鄭宗魯¹²³⁾

5. 맺는말

선생의 生涯와 思想 및 學問에 대하여 매우 皮相의으로 대강 살펴 보았으나 필자의 淺薄한 공부로써, 어찌 선생의 眞面目을 옹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시 선생의 知己로써 선생의 모든 면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訥隱 李光庭 先生의 祭文에 있는 말을 引用하여 결말을 맺고자 한다.

‘嗚呼有生有死 理之常也 公之壽八十有二年 壽非不遐也 公之位遺逸 而至於大夫 位非不高也 公之名達於天陛 而播於鄉邦 知不知皆曰仁人也 則名非不達也 人亦孰不以爲 無憾於死生之際 而若余之心 則有甚可惜者焉 有甚可悲者焉

119) 桑榆 : 저녁 해가 뽕나무나 느릅나무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해저물 무렵 혹은 인생의 말년 황혼기를 의미한다.

120) 蘧瑗 : 춘추시대 衛나라 大夫. 자는 伯玉.

121) 六十之化 : 나이 60세가 되어서도 60세 만큼이나 생각이 변화하여 처음에는 옹게 여기던 것을 마침내는 그릇된 것으로 배척하였고, 59세까지 옹게 여기던 것도 60이 되어서 다시 생각을 수정하였다고 함. 『莊子 雜篇 則陽』

122) 衛武九十之箴 : 춘추시대 衛나라 武公이 나이 95세가 되어서도 오히려 나라에 경계를 내려 말하기를 “卿이하로부터 師長 士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조정에 있는 사람은 내가 늙었다고 하여 나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공경하고 삼가 교대로 나를 경계하라” 『詩經 大雅 抑篇』

123) 鄭宗魯 : 1738~1816. 호는 立齋, 본관은 진주, 대제학 鄭經世의 6대손. 遺逸로 천거되어 벼슬이 持平에 이르렀다. 성리학에 정통하였는데, 理氣論에서는 主理, 心性論에서는 主氣를 취하여 折衷派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백불암 선생의 손자 崔湜이 그의 사위가 되었다.

有甚可自傷者焉 盖公崛起南服 非有藉於矯揉琢磨之功 而天資之美 暗與道合 厭浮華而敦行 檢安淡泊而崇儒 素入而事親則 養致樂 病致憂 喪致哀 祭致敬 出而交於人 則敬其老 慈其幼 信於友 親於仁 故望其看睫 而絕驕矜之思 入其門庭 而生孝悌之心 徇名者自反 逐華者自慙 庶幾扶持於世道之狂亂 昔人所謂 大川喬嶽 雖不見其運動 而功利之及人者 不可以數計 而公今逝矣 後生初學於 何考德師範 而一脈世教 其將孰主 而孰張之 此余之所以深惜者也¹²⁴⁾

(아아,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은 이치상 당연하다. 공의 壽가 팔십이세였으니 수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며, 공의 지위가 遺逸로서 大夫에 이르렀으니 지위가 높지 않음이 아니며, 공의 명성이 조정에 알려지고 鄉邦에 퍼져,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두 仁人이라 일컬었으니 명성이 통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로다. 사람이란 누구라도 死生의 즈음에 유감이 없지 않겠는가마는 나의 마음에는 매우 애석하고 슬프며 저절로 상심하는 것이 있다.

대개 공은 남방¹²⁵⁾에서 일어나, 바로잡아 주고 琢磨하는 공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타고난 자질의 아름다움이 깊숙히¹²⁶⁾ 道와 합하였다. 浮華함을 싫어하고 검소함을 돈독하게 하였으며, 淡泊함을 편안히 여기고 儒素¹²⁷⁾를 숭상하였다. 집안에 있으면서 어버이를 섬길 때는, 奉養함에 즐거움을 극진히 했고, 疾病에 근심을 극진히 하였으며, 喪事에는 슬픔을 극진히 했고, 祭祀에는 공경함을 극진히 하였다. 집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사귄 때에는, 노인에게는 공경하였고, 어린이에게는 자애로왔으며, 朋友에게는 신의가 있었고, 어진 사람과 친근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眉睫¹²⁸⁾을 바라보면 驕矜¹²⁹⁾한 생각이 전혀 없고, 그 門庭에 들어서면 孝悌의 마음이 생겼다. 명예를 좇는 자들은 스스로 반성하였고, 榮華를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하였으니, 世道를 狂瀾에서 거의 扶支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大川과 喬嶽이 비록 그 운동함은 보이지 않으나, 功利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공이 지금 가셨으니 後生 初學이 어디에서 德을 考究하고 스승을 模範하겠는가. 一脈¹³⁰⁾의 世教는 장차 누가 맡을 것이며, 누가 떠 나갈 것인가 이것이 내가 매우 안타까와 하는 까닭이다.)

124) [文集] 卷六 祭文

125) 南服 : 王畿의 남쪽 지방.

126) 暗 : 깊숙할함. 深也.

127) 儒素 : 儒者의 操行.

128) 眉睫 : 사람의 모습. 용모.

129) 驕矜 : 교만히 굴고, 자신을 자랑함.

130) 一脈 : 강이나 산맥의 한 줄기. 한 맥락.